

SK SMART CITY SearchLight

연구원. 신서정 / 3773-9978, seojeong@sk.com
연구위원. 손지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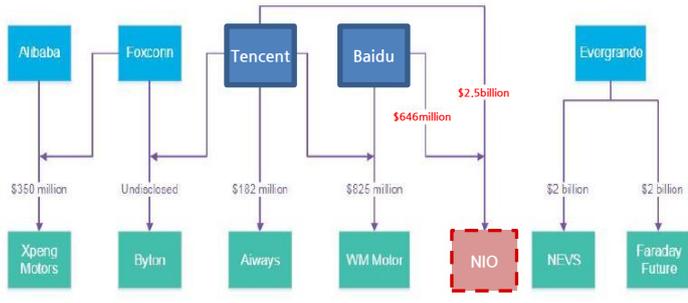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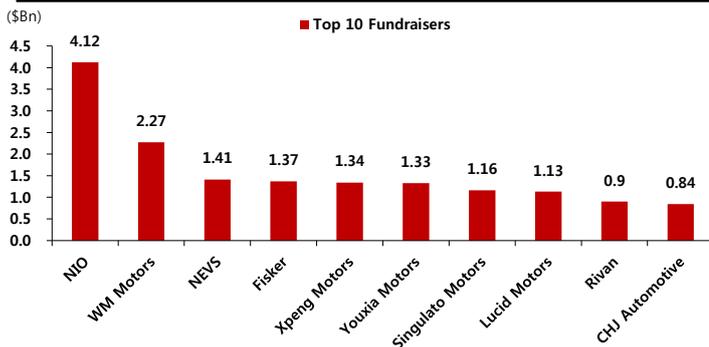
NIO, 홈그라운드 이점을 백분 활용하다

관련 뉴스 요약 "Nio is Tesla's biggest competitor in the Chinese EV market"

- 중국 로컬 전기차 회사가 향후 EV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
- 실제로 2017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기준, Top20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중국 내 로컬 회사
-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탄생한 EV스타트업에 주목하는 바. 특히 'NIO'는 테슬라의 가장 큰 적으로 뽑히는 수준

Implication

중국 내 EV Startup Investor 및 Fundraiser



- NIO는 中 자동차 메이커 최초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진출한 전기차 업체로, 일명 '중국의 테슬라'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. 그러나 어쩐지 청출어람하는 모습이네요. 18년 하반기 기점으로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. (19년1월 기준, NIO 1,891대/ 테슬라 853대)

- 흔히 중국 전기차 시장은 '전통 자동차 회사'와 '신생회사'로 구분되는데, 단연 눈에 띄는 기업은 NIO, 웨이마, BYTON 등의 신생업체입니다. (EV 스타트업 내 Fundraising 기준, 1위 NIO/2위 웨이마)

- 소위 '중국 시장을 알려거든, BAT가 찍은 곳을 봐라'라는 말이 있듯, 이번에도 투자주체 대부분이 BAT임에 특히 주목하는 바입니다.

자료: Bloomberg, 언론종합

전기차 # BAT # Io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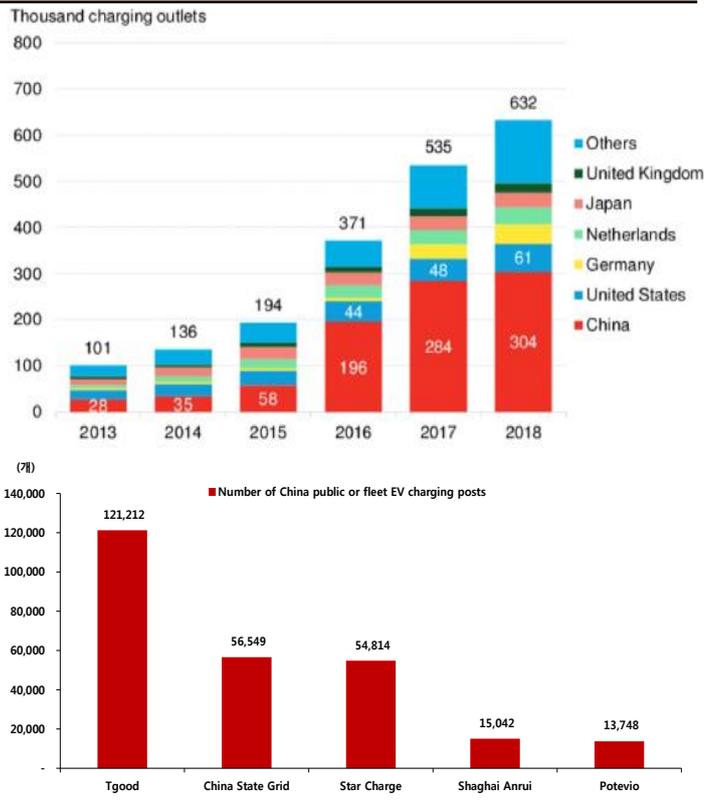
전기차 상용화에도, 인프라가 먼저다

관련 뉴스 요약 "한국, 전기차 급속충전소 2022년에 1만개 구축"

- 전기차는 수요측면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,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제기
- 충전인프라 면에서 TOP2 국가는 中과 美, 특히 中은 '정부차원'에서 충전소 등 인프라 투자에 공격적인 모습
- 19년 1월 기준, 중국 내 약 808,000개의 EV Chargers(Public 330,000/ Home 480,000) 존재(YoY+80%)

Implication

국가별 전기차 Public Charging Points



자료: Bloomberg

중국# 전기차 # 충전소

- 자동차 문화의 확산에는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'헨리 포드' 만큼 주유소를 미국 전역에 퍼뜨린 '록펠러'의 영향도 컸습니다. 즉, Killer App의 성장에는 유관 인프라의 확산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죠
- 중국은 전기차 강국답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도 No.1의 모습입니다. 실제로 18년 기준, 중국은 전체 Charging Points의 49%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단순히 면적이 커서라고 하기엔 충전소 개수의 성장세가 무서운 수준입니다 (5yrs CAGR 미 25%/ 중 61%/ 글로벌 44%)
- 단연 눈에 띄는 기업은 Tgood , China State Grid 등 이네요. 특히 China State Grid의 경우, EV Charging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